

지역 소식통

부안,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단)에서는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새로 갖추어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여 안전한 농산물 확보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질량분석기(LC-MS/MS, GC-MS/MS) 등 최신 분석시설을 갖추고 잔류농약 463종을 검사할 수 있으며,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로 부적합할 경우 생산단계 농산물은 출하 시기를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유통단계 농산물은 납품 중지 또는 출하를 정지시켜 안전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부안군 농업인이 재배작물의 안전성 관리 목적 및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을 목적으로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 출하 10~14일전 농산물 시료(1~2kg)와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등록증 등)를 지참해 농산물 안전분석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 챌린지 참여 업체 모집

정읍시보건의료는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 소상공인 연계챌린지를 함께할 업체를 모집한다. '워크온'은 자신의 걸음 수를 측정하고, 챌린지를 통해 일정한 걸음 수를 모으면 선물을 주는 앱이다. 소상공인 연계챌린지는 챌린지 기간 동안 목표를 달성한 시민에게 소상공인 업체 이용 쿠폰(1만원)을 지급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챌린지 참여 업체 모집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2월 23일까지이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을 대상으로 한다. 단, 최근 2년 이내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업소 및 프랜차이즈 영업점은 제외한다. 시는 신청한 영업점 중 챌린지 참여자의 선호도 조사에 따라 15개 내외의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공감하는 군정운영 행정력 집중”

권익현 부안군수, 2024년 군민과의 열린소통대화... 오늘 주산면 · 부안읍 시작

권익현 부안군수(사진)가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비전 완성을 위해 26일, '견인창대(堅忍創大) 군민과의 열린소통대화' 막을 올린다.

26일 오전 주산면, 오후 부안읍을 시작으로 29일 동진면과 백산면, 30일 행안면과 진서면, 31일 보안면과 줄포면, 2월 1일 계화면과 변산면, 2일 상서면과 하서면, 5일 위도면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군민과의 열린소통대화는 [군민과 함께 성장! 새로운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의견을 가장 없이 주민과 서로 주고받아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뿐 아니라 경로당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열린 행정을 실현할 예정이다.

아 군민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음·면 방문을 통해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해 군정 성과와 올해 군정

권익현 군수는 “13개 읍면 방문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행정 강화를 집중하겠다”며 “부안군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해 부안 대도약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부안군 사자성어는 굳은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 도약의 계기로 삼자는 견인창대로 현재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굳은 의지로 참고 견뎌 기회로 삼아 부안 미래 100년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및 위촉장 수여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150만원 이내로 인상 결정

고창군이 25일 군청 5층 회의실에서 2024년 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정비심의위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가 110만원 이내에서 150만원 이내로 인상돼 이를 결정하기 위해 열렸다. 위원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기관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10명으로 선정됐다. 위원 위촉장 선사문 제출, 위원장 선출,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의정활동비의 기준금액 설정 후 주민의견수렴 방식 등을 결정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설정된 기준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한 후 이를 바탕으로 2월 중 2차 회의를 개최해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고창군이 25일 군청 5층 회의실에서 2024년 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중

요한 지리인 만큼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스마트 통합돌봄도시 현장 간담회

정읍시가 스마트 통합돌봄 선도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발판을 마련했다.

정읍시는 지난 23일 시 컨퍼런스센터에서 스마트통합돌봄도시사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앙대학교 지역돌봄과 건강평형연구소와 함께한 이번 간담회는 스마트 도시와 건강도시 개념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통합돌봄 선도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진행된 마을돌봄네트워크 활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사회 현황 진단 조사 및 돌봄수요 면담 조사 등을 발표하고, 모아진 자료들을 통해 미충족 돌봄 해결을 위한 2차년도(2024년도) 연구방향성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중앙대로부터 사업 협력 기관으로 선정된 정읍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통합 돌봄도시 연구에 2년간 참여하게 된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서울대, 고려대, 카이스트 등 10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수행 컨소시엄을 구성해 협력 추진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업의 참여로 분



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기관의 돌봄서비스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정읍시민의 스마트 돌봄서비스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힘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25일 오전 고창군농업인회관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롯한 농업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창군, 농업인회관 준공식

심덕섭 군수 “농정 발전을 견인하는 고창군의 랜드마크가 될 것”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대표 농정 공약인 ‘고창군 농업인회관’이 완공됐다.

25일 오전 고창군농업인회관(고창읍 중거리당산로 98)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롯한 농업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준공식은 축하 공연과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기념사, 오백떡 컷팅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고창군 농업인회관은 총 31억3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상 3층, 연면적 978㎡ 규모로 건립되었다.

1층 창업·가공 교육관에는 지역 우수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가공과 시제품 개발, 창업 및 가공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제조 장비를 구비했다.

2층은 농업인단체 사무실과 세미나

실, 휴게실로 활용될 예정이다. 3층은 184석을 갖춘 대회의실로 첨단 방송통신 장비를 갖춘 극장식 공간으로 구성되어 다채로운 교육과 행사가 가능하다. 또한 고창군 농업인단체는 소통·교류 전용 공간이 없어, 지난 25년간 농업기술센터 등을 활용해 왔다.

고창군에서는 농업인회관을 통해 더 나은 협업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 농업인회관은 지역 농업인의 화합과 새로운 농정 발전을 견인하는 고창군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농업인 소통 창구는 물론 고창 미래농업 발전의 플랫폼 역할을 다하도록 농업인 활동 지원 조성과 소통·교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정읍시가 설 연휴 전과 연휴 중에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시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시는 2월 1일부터 15일까지 폐수 무단방류, 악취 등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중점감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순찰 대상 지역은 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의 공장 밀집 지역 및 주변 하천 등으로, 해당 기간에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설 연휴 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체점검 협조 안내를 시작으로

취약업소·지역 중심 감시·순찰 강화 및 오염우심지역 배출업소 특별 점검, 설 연휴 중 산업단지 및 주변 하천 등 오염우려 지역에 대한 수시 순찰,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 설치·운영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도축·육류가공 및 식품가공 등 폐수다량 배출업체, 폐수 위탁업체 등 오염우심지역 폐수배출업소와 사료제조업체 등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백근대 환경정책과장은 “설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시민들과 귀향객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